社 說

변화의 요구는 긴장이자 도전이다

—2학기 개강을 맞이하며

2학기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지나간 여름방학의 아쉬움을 시간속에 묻은 채 캠퍼스는 이제 젊음의 활력과 기대로 가득차 있는것 같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시간에 주변을 점검하고 각오를 다짐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주변 안팎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의 질서를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는 한·중수교. 송치계 치닫고 있는 국내 대통령선거.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일 피부로 느껴진다.

압축시대의 종결은 군사, 경제면에서의 지역주의를 낳고 그같은 힘의 다변화속에서 자기 몫을 찾으려는 민족간의 충돌은 가히 처참할 정도다. 무엇보다 체제와 이데올로기 우위의 시대는 지나가고 기술과 지식, 경제잔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학내에서의 변화요구 또한 거세다. 학문도 이제는 상품화 되고 경쟁과 존립의 경쟁시대에 돌입한 느낌이다. 대학이 이제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의 역량을 기르고 축적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세계적인 넷트워크에 걸친 학술정보는 그것들의 소화에 대한 입력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창출해야할 연구영역을 강요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 변태학에서 신설된 연구처장제도도 그 같은 변이를 증거하는 사례다. 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는 물론 형평의 전산화까지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대응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이익집단의 다변화와 권위의 새로운 방식의 창출에 대한 필요학문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들이 그것이다.

사실 학문과 교육의 상품화는 우리자신들의 대학과 가르치는 자에 대한 개념마저 크게 바꾸어 놓을지 모른다. 과목의 중요성 보다는 과목의 선택성 다시말해 상품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점에서 강의는 개설되었다기 보다 선택되고 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사회에 만연해 가는 3D 기피현상속에서 학문세계에서 조차 저마다의 편의에 따라 이합집산을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다.

변화는 문화와 가치관 까지도 바꾸어 가고 있다. PC, FAX, 무선통신 등의 개발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일과 인간의 관계, 삶과 여가의 관계 더나가 세계관 까지도 바꾸어 놓을지 모른다. 집단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고, 개인은 점점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고, 개인은 점점 파편화 되어가고 있다. 과정 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도덕보다는 능률을 앞세우고, 절제보다는 감각충족을, 밤을 리기 보다는 즐길만큼을 일에 만족해 하는 풍토로 바뀌어가고 있다.

세계는 다변화 되어 가는데 우리를 얽매년 힘으로 지배하는 하나의 힘이 있으니 그것은 자본의 논리, 상업의 논리다. 정신문화도 머리는 없고 몸만 뛰어놓고, 문화도 예술도 인간의 가치까지도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변화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2학기를 어떻게 보낼것인가의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무엇보다 학문풍토의 조성, 지식과 기술의 창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노력, 시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해가는 가치창조의 예지로 깊이 갈라 갔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자존심과 명예욕을 대학인다운 지향심을 더욱 길러야 겠다. 자존심이 없으면 동물집단과 크게 다른것이 없다. 자기가 선자리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몫을 다하는 고독한 일꾼. 변화를 발전으로 바꾸어가는 선구자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켜야 할 대학언론의 편집자율권

—서강대 서강학보사태를 보며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다. 그러므로 언론은 어느 특정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또한 어느 특정집단에 의해 그 자율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나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편집자율권이며 이는 언론사 내외에서 언론에 가해지는 간섭, 규제,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독자와 일반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문제작과정의 자율성을 갖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2학기 개강을 맞이했다. 그러나 서강대학교의 서강학보가 편집권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다. 지난 5월26일 이후 주간교수와 학생기자간의 편집권 마찰을 이유로 발행이 중지되고 있는 서강학보가 8월 18일자 신문에 학생기자들이 전면 배제되어 학교측에 의해 발행됨에 따라 그간 대학신문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어오던 대학신문의 이원화 방안이 가시화된 것으로 편집자율권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신문 발행이 다름 아닌 편집권의 마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편집자율권이라는 것은 편집진들의 편집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이다.

일부 주간교수는 전적으로 주간교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든가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적인 편집권을 침해하려 든다. 그러나 이것이 잘 해결되지 못할 때 최악의 경우 발행중지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동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학생이 주요주체임을 망각하는 처사이다.

또한 서강대의 경우처럼 이러한 마찰의 결과가 악화돼 나온 이원화조치 역시 주간교수가 제작하는 신문과 학생들이 제작하는 신문의 공존상태로 이해하기 쉬운 면이 있다. 그러나 자율권 보장이라는 이면에는 발행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전가해 담국의 탄압을 용이하게 하거나 동독권의 일부인 대학신문의 물적태도가 제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현재 주간 2배50만부 발행이라는 대학신문의 선전력은 권력에 얽힌신 부담을 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러유형의 탄압에 의해 그들의 의도대로 대학신문이 제도언론과의 차별적인 저널리즘을 갖지 못하고 순수한 학술적 차원의 내용만으로 채워졌을 때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 대학이 해야할 일은 분명해진다. 서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마땅히 기자들의 편집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와함께 학생기자들 역시 그에 걸맞는 지성과 이론을 갖춰 더욱 더 학생들 깊숙이 자리잡는 신문을 만들기를 고민해야 한다.

한편 신문제작이 교육의 연장이라는 일부 학교들 역시 진정한 교육의 측면에서의 지도, 즉 학생들이 가진 학술적 능력의 한계를 보완해 주며 교수, 학생, 교직원 모두가 대학신문의 주체로서 서로 고민하며 대학신문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체비평

상업주의 신화 만들어내는 TV방송

'전파낭비' 라든지 올림픽이외에 시청뉴스가 무참히 묻힌것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다. '월주대교 붕괴, 이종웅씨 선정혹, 증시위기' 등의 소식은 급배달 환호 중시하는 풍조 그리고, 옐리트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다. TV방송들이 상업주의의 그늘 아래로 숨고 있다. 이러한 상업주의는 계속되는 스타만들기, 그리고 오락프로그램 즉흥적인 것이다. 최근 여러 주간지에 실린 '텔레포츠' 라는 신조어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선수들은 상품화되어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만이 스타가 되며 TV는 온갖 그 신화를 만들어 낸다. 더불어 상품광고도 거기에 한몫을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경기가 새벽에 방송된 뒤에 기민하지고 말았다. 또한,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성장한 체육활동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스포츠 강국이 곧 부국 또는 강대국이 되는 것처럼 효율감을 변경도 잘못된 모습이었다.

오직 1등에게만 돌아가는 환호성과 박수는 결국 우리사회의 만연한, 결과를 제대를 찾아 TV방송들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속에서 TV는 자본과 권력앞에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많은 사회보도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뷔즈·오락·쇼가 증가하는데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프로그램도 아직 여러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sbs의 미스테리 프로그램의 관계자는 정치적 미스테리를 다루는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12일 중앙대에 들어간 전경들의 야탈과도 같은 광경은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TV가 공정하다고 믿는 시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도 TV가 유세에 이용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다. 과연 TV가 비보상자로 혹은 정보의 상자로 남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리 희망적이지는 못하다. 무엇보다도 TV감시운동과 방송심의 자체 정화노력이 가장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송보영 記者)

동아시아 질서와 통일의 전기

—한·중수교 역사적 배경과 동북아 정세

사론

Ⅰ. 문제의 제기

지난 24일 북경에서는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의 탄생이래 43년만에 한·중국교가 수립되었다. 이로서 양국은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서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부인하던 모순된 장래의 정상화를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리와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듯이 유사이래 근대이전까지 거의 유일한 정치·문화의 영향 세력이었던 중국과의 43년간 교류 단절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비록 정치적인 단절이나 대결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양국은 항상 같은 궤도에 있었음을 생각하면 현대사의 이러한 단절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한국은 지역사에서 처럼 화해전선의 단계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간의 수교는 한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또는 중국, 일본의 북한 관계등과 얽혀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가 개편되고 그리고 문화권이 새로이 확인·형성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빨리 변화하며 치열한 경쟁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추구해야는 우리에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Ⅱ.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지평

수천년간 한반도에 대해 중국은 항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곧 조공이란 형태의 중국적 대외질서로 나타났다. 역사상 오랜 혼란을 극복한 중국의 강대한 통일국가는 거의 예외없이 한반도에 그의 지배권의 강화를 시도해, 한무제의 군·현설치, 수·당제국의 백제 고구려 공격, 동고제국의 고려침략, 청제국의 정묘·병자호란등이 바로 그 실례이다.

특히, 1949년 100여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륙을 재패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후 겨우 1년이 지난 1950년 겨울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은 이러한 역사의 연속성 내지, 순환적 성격을 생생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한·중수교는 중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의 완성과 국내문제의 안정을 의미하기도 하며 최강의 적을 항상 북방에 가졌던 중국으로서 이제 구소련의 붕괴와 대내적인 안정기를 맞아 바다건너 강력하게 성장하는 일본에 대응하는 체제의 구축인 것이다.

한편 문화적인 면에서 이붕 총리가 이상욱 외무장관에게 말한 것 처럼 동방문화권의 제자리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이념상의 차이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그의 화해와 접근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역사상 가장 큰 이웃과의 교류를 회복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과 발전의 범위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1962년의 한·중수교는 불평등스러운 신대륙발견의 의미였으는는 지난 40여년간 미래서 있었던 이웃과 생활 및 문화권을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것이다.

Ⅱ. 동아시아의 신질서

북방이 안정되고 대내적 희복기의 중국은 그의 역사적 동방질서으로 한·중수교를 시작하고 남북한의 분단상황에서 현상유지를 통한 등거리 외교로 한반도에서의 인민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을 잃을과 이 (間)의 관계로서 표현하는 정치권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안정에 결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앞으로 일본과의 대응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정치적 단계이었음을 확실하다. 이 경우 중국에 있어서 특히 한반도의 남부는 더욱 그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거대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일본의 경제심을 불러일으키며 북한과의 대결구도가 더욱 고착화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특히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위한 기반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한국은 그동안의 미국·일본등에 편중된 남방의 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관계 개선을 통해 전반위의 외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아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주변정세의 추이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다.

유럽의 EEC나 북아메리카의 NAFTA등 지역 연합의 세계적 추세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결속을 가능케게 할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념의 차이, 생활 수준의 불균형, 현대사에서 일본의 부정적 역할 등으로 비관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교와 유교 및 한자등 같은 문화권의 공통의식이나 타지역 연합의 자극등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리추구 과정 통일기반 확대 예상

동북아 환경과 변화에 대응책 시급

또한, 한국적인 면에서 이붕 총리가 이상욱 외무장관에게 말한 것 처럼 동방문화권의 제자리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이념상의 차이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그의 화해와 접근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역사상 가장 큰 이웃과의 교류를 회복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과 발전의 범위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1962년의 한·중수교는 불평등스러운 신대륙발견의 의미였으는는 지난 40여년간 미래서 있었던 이웃과 생활 및 문화권을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것이다.

Ⅱ. 동아시아의 신질서

북방이 안정되고 대내적 희복기의 중국은 그의 역사적 동방질서으로 한·중수교를 시작하고 남북한의 분단상황에서 현상유지를 통한 등거리 외교로 한반도에서의 인민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을 잃을과 이 (間)의 관계로서 표현하는 정치권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안정에 결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앞으로 일본과의 대응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정치적 단계이었음을 확실하다. 이 경우 중국에 있어서 특히 한반도의 남부는 더욱 그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거대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일본의 경제심을 불러일으키며 북한과의 대결구도가 더욱 고착화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특히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위한 기반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한국은 그동안의 미국·일본등에 편중된 남방의 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관계 개선을 통해 전반위의 외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아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주변정세의 추이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다.

유럽의 EEC나 북아메리카의 NAFTA등 지역 연합의 세계적 추세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결속을 가능케게 할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념의 차이, 생활 수준의 불균형, 현대사에서 일본의 부정적 역할 등으로 비관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교와 유교 및 한자등 같은 문화권의 공통의식이나 타지역 연합의 자극등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냉전체제속에서 단절과 분리가 아니라 상호의 교류 및 관계와 극심한 경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매우 치열한 외교적 활동이 예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나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도 고대 중국의 소진, 장의나 프랑스의 타레이랑, 브리앙, 장 모너 또는 비스마르크 같은 위대한 외교관의 활동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대륙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대륙을 경제하면서 그의 주도권을 대륙에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대륙주변에 있는 해양의 근거지를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경쟁과 협력의 반복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계속 지킬 것이다.

Ⅳ. 우리의 자세

한·중수교등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발전과 안정 및 통일을 위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 변화와 도전들이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응자세가 확고하면 이를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우리의 자세를 몇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로, 격변하는 주변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적인 안정 즉 사회정의가 지켜져 잡아야 할 것이다. 이 바탕위에서만 모든 발전과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개방된 이 시대와 국제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홀했던 주변국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시급하며 우리 대학도 이점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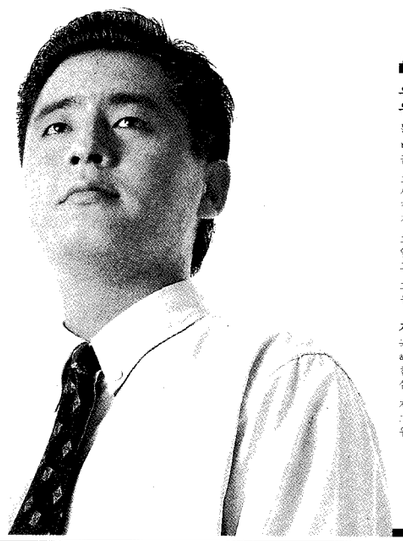
셋째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단점이 외화내빈의 단점을 버리고, 외치기보다 내면적으로 접근을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기 보다 우리의 내실을 통해 실리적이고 독자적인 외교를 벌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보다 웅대하고 원대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 민족의 지혜와 용기 및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신 용 철
(문리대교수·사학)

"영광의 탈출"

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



우리나라를 정말 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드는 일 –
우리 다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가 되는가 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는 산 솟구 있다는 꿈과 희망이, 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굳은 의지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꿈과 희망이,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식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꿈과 희망이 있어야할 그 자리엔 탐욕과 이기주의가…
정결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할 그 자리엔 방종과 나태가…
자리잡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의지와 열정을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으로, 의지와 열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진실로 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한국중공업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내는 물론, 구미, 동남아, 중동지역 등 세계곳곳에서 시멘트 플랜트사업, 해수담수화 플랜트, 석유화학 및 화공 플랜트 사업 그리고 제철소 건설사업에 참여, 원만하게 건설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중공업 산업의 저력을 세계속에 심어온 한국중공업 –

저희 한국중공업은 수많은 플랜트 수출에 앞장서오면서 심어온 우리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수많은 난공사들 극복해오면서 다져진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정말 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중공업